

축사

오늘 평택 법장사 대웅보전 봉불 및 낙성 대법회에 참석하여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저 개인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택은 제가 어렸을 때 이웃 화성에서 자라면서 더러 방문했던 매우 친숙한 고장입니다. 경기평야와 서해바다와 명산이 있는 수려한 풍광에 더해 4통8달의 교통요지로서 국가공단과 종합무역항이 있어 1차에서 4차 산업까지 모두 아우르는 도농복합의 국제도시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를 바탕으로 정확히 1년 반전인 2019년 4월 11일에 50만을 넘어선 이래 빠른 증가율로 얼마 안 있어 인구 60만의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날로 발전하는 평택시의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 또한 더하기 위해 40여 년 전에 대한불교천태종단이 법장사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5일 기공식을 봉행한지 불과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이처럼 장엄한 새 법당이 건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장엄도량의 대웅보전 봉불 및 낙성 대법회를 계기로 평택의 불자 시민들 모두가 성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대한불교천태종단의 높은 위상 그리고 종정예하의 위신력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시간입니다. 아울러 지난 2년 여간, 좁고 불편한 임시 법당에서도 상월원각대 조사님의 가르침대로 용맹정진하시면서 이처럼 큰 대작불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일에 진력하신 신거성 법장사 주지스님과 이종빈 신도회장님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께도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금강대학교는 천태종단이 2002년에 세우고 지원해 온 여러 불자님들의 학교입니다. 외국의 명문대학들은 말할 나위도 없습시다만, 한국에서도 소위 명문대학들은 대개 100년 이상의 연륜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교한지 2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금강대학교는 학생 수 대비로는 가장 많은 공직자와 해외 유학생을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개교 20주년을 계기로 금강대학교는 타 대학들이 할 수 없는 불교인문학과 공공정책학을 융합하여 인성과 정치행정·경제경영의 지식과 지혜를 고르게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화를 통해 금강대학교는 동아시아 최고의 인문사회과학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금강대학교가 ‘소수정예’의 인재를 양성하는 종립대학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종정예하와 대덕스님들 그리고 우리 천태불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법장사 대작불사의 장엄한 회향을 진행하시는 와중에도 금강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획관리처장으로 애써 주시고 계신 신거성 주지스님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거성 스님께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학교 경영에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천태종의 ‘주경야선 용맹정진’의 수행력이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권 최고의 장엄도량으로서 대웅보전 봉불 및 낙성 대법회를 계기로 평택

법장사가 당면한 ‘코로나19’ 극복에서 세계기후변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정화하는
귀의처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한국의 미래를 밝혀주는 국운융창의 도량이
면서, 어려운 시기에 불자님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의 도량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만 간단히 축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합장